

56 京城府史^{경성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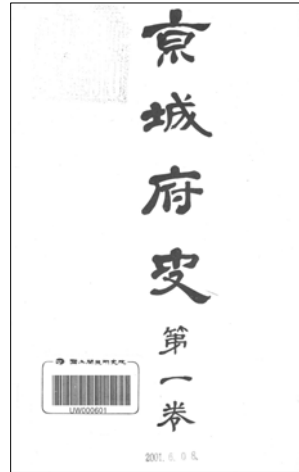
1934년 / 경성부 / 각 791면, 1,121면, 1,017면 / 14.10-11 경 1941

『京城府史(경성부사)』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사, 즉 서울의 역사란 뜻이다.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은 태고 시대부터 일본의 통감정치 개시 이전 해인 1904년까지의 기록으로 791면이다. 제1권은 1934년에 당시의 경성부(서울시)가 발행한 것이다. 출판 당시는 대단히 호화롭게 제본을 했는데 당시 조선총독과 박영효의 휘호와 많은 사진이 들어 있다.

1927년에 부사(府史=市史) 편찬을 기획하고 그해 7월에 당시 경성제국대학 교수인 小田省吾(오타 쇼고)와 中樞院(중추원), 촉탁인 尹喜求(尹喜求)를 고문으로 모시고 안규응(安奎應)과 일본인 岡田(오카다)를 촉탁으로 임명하고 고용원 2명을 배치하여 작업을 개시했다. 편집위원으로는 한국인 芮宗錫(芮宗錫)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작업에 이병도(李丙燾) 박사가 참여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작업을 하는 데 오타(小田) 경성제국대학 교수는 많은 자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京城府史』는 단순히 서울의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무대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작업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고(古) 기록은 모두 섭렵하다시피 하여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이란 명칭의 변천사



를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北漢山 백제시대의 호칭
- ② 北漢城 백제시대의 호칭
- ③ 北漢山郡 고구려시대의 호칭
- ④ 南平壤 고구려시대의 호칭
- ⑤ 新州 신라 24대 진흥왕 14년
- ⑥ 北漢山州 진흥왕 18년 신주(新州)를 폐하고
- ⑦ 南川州 진흥왕 29년 북한산주를 폐하고
- ⑧ 漢陽郡 신라 35대 경덕왕 14년
- ⑨ 楊洲 고려 초기의 명칭
- ⑩ 南京 고려 15대 숙종 6년
- ⑪ 漢陽府 고려 25대 충렬왕 34년
- ⑫ 漢城府 이조 태조 3년
- ⑬ 京城府 1910년 10월 1일 일본제국

제2권은 1905년~1914년까지 10년 간의 기록인데 1,121면의 방대한 분량이다. 제3권은 1914년~1940년, 즉 태평양전쟁 발발 1년 전까지의 26년 간의 기록이다. 3권의 분량도 1,017면에 달한다. 이 책이 기본적으로는 일제 식민사관에 따른 기술이겠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통해 이면(裏面)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는 크다.